

사진으로 본 '90전국농민 추수 대동제

원천봉쇄 극복한 3일간의 '농민세상'

전야제 행사중 길놀이를 마치고 한데 모여 부침개를 나누어 먹으며 추수대동제를 자축하는 농민들의 흥겨움이 보이는 하얗게 정겨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고 있다.



▲ 포천마걸리를 마시며 보다 나은 추수 대동제를 이루어내고자 고민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해 보인다.

▶ 순수문화행사인 '추수대동제' 조차 원천 봉쇄하는 전경들의 모습에서 농민운동에 대한 현 정권의 위기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한 해 동안 생산한 곡식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 면연히 이어져 오는 공동체적식을 보다 고양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농민 추수대동제'가 정부의 불허방참에 따라 원천봉쇄 되었다.

행사내용을 보더라도 공연과역거리와 특산물 장터로 구성되는 문화행사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명분으로 원천봉쇄를 감행한 것은 실력력을 전혀 가질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 첫날인 17일 3천여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비록 적은 인원이고, 집결 과정에서 권중대(전국농민회 총연맹회장)씨가 연행되는 불상사를 낳기도 했으나 이번 행사의 강행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농민들의 투쟁에 있어 한층 자신감을 부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편집자註>



프로듀서 연합회 제4대 회장 김윤영 동문

보다 진실된 내용을 탐구

잡아가고 있다. 회장으로서 이번 PD 연합회의 전망에 대해 '임기기간중에 거창한 사업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제작사 사회환경, 시대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PD들의 구심점이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고질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개선없이 민방의 설립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민방 기업체 선정기준등의 말이 많잖습니까?라며 민방의 설립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PD연합회의 의견을 밝혔다.



남북 PD간 교류사업도 계획중

언론종사자의 '특권의식' 이제는 버릴때

주항쟁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룬 '어머니의 노래'를 제작한 김윤영 PD는 '사실 14년간의 방송생활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머니의 노래'지요. 작품이 제작돼 방영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많은것들을 잃기도 하면서 반면 얻은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발달이었던 'PD 수첩'의 팀장이기도 한 김윤영 PD는 지난 양방 송사의 파업을 통해 언론종사자들의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사실 방송사 파업은 임금인상같은 요구는 없어요. 방송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생존권 보장은 된 셈이니까요. 언론종사자들이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며 생산단체가 아닌 언론사노조의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뜻 있고 그방법에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영어실력이 남보다 좀 뛰려면 원하는 일을 할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덧붙여 행정고시만같은 학교원에서의 각과 전공을 살릴수 있는 분위기 조성 시급하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남북 PD간의 교류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는 김윤영 PD는 요즘한창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방설립문제에 대해 '언제고 민방은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채널의 선택권만 많아지는 것에 동의하지 방송구조의

임기시작한지 2달남짓한 김윤영 PD는 '벌써부터 프로그램에 감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1년임기가 끝나면 다시 MBC의 광범한 PD로 돌아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소외받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싶어요'며 앞으로의 소망을 피력한다.

2달남짓한 김윤영 PD는 '벌써부터 프로그램에 감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1년임기가 끝나면 다시 MBC의 광범한 PD로 돌아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소외받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싶어요'며 앞으로의 소망을 피력한다.

열사와 하나된 '전노협'

전국노동단체협의회(이하 전노협)가 지난 11일 고려대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에서 '제3회 전태일 노동상(이하 노동상) 수상단체로 선정되었다.

전태일 열사의 뜻 계승과 살아있는 노동운동의 모범을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 88년 10월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노동상은 계급성, 조직성, 투쟁성, 헌신성의 4가지 기준에 입각해 수여 된다.

이러한 기준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로써 설정된 것이다.

전노협이 수상단체로 선정된 근거도 4가지 기준에 입각해 전노협의 90년 사업내용과 투쟁성과를 검토한 바이다.

전노협의 90년 사업내용과 투쟁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계급성, 전노협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조직이며, '창립선언문'에서 밝혔



전노협, '제3회 전태일 노동자상' 수상 헌신성등 4가지 기준통해 엄격히 심사

듯이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을 추구한다."라는 민중경제설립의지를 표명했다. 둘째, 조직성, 전노협의 건설

적인 산업별 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총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산업별 노조의 전국중앙조직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설정하여 조직형태의 발전 전망을 명확히 제시했다.

셋째, 투쟁성, 지난 5월 1일 전노협의 감행했던 총파업 투쟁은 48년 '노동조합전국협의회'의 총파업이후 처음으로 1백70여개 노조 연인원 30여만명이 전국적 총파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철회되었던 당시의 국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구심이 전노협임을 명확히 입증해 내었다.

넷째, 헌신성, 노동운동단합이 계속 되는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이 구속 되었다. 그러나 3월 이후 철회기를 걸어오던 국면을 단병호위원장 석방투쟁을 통해 투쟁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90년도 임금투쟁을 촉발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일반의 생존권 확보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

<조인성 記者>

코오롱, 과연 어떤 기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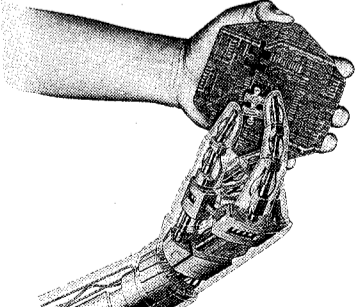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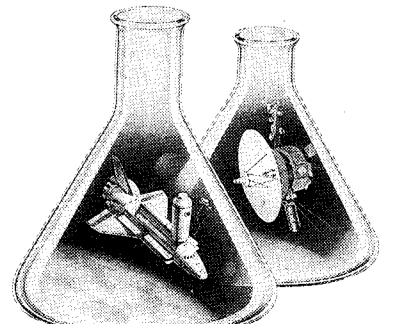


광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비롯한 놀라운 신소재로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리드하는 선두주자 코오롱

각종 고급원사에서 산업용 섬유를 포함한 합성의 전 분야에서 업계 정상의 위치를 고수해 온 섬유 부문 코오롱 - 강철보다 강한 섬유 아라미드 섬유, 온도도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본레온 섬유, 광섬유 등 이렇듯 의외의 혁명을 주도해 온 코오롱의 역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의류 용도에 국한하여 생각되어 오던 섬유 산업이 이제 코오롱의 첨단기술에 의해 각종 인류의 미래생활 전 영역을 커버하는 섬유원천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를 포함,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서 미래 세기를 리드하는 코오롱

코오롱의 화학산업분야는 이미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폴리에스터 필름, 고강도 코오롱비디오테이프, 세계 최첨단 기술분야에서만 안되고 있는 DAT(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그리고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도 녹지않는 공의 신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코오롱의 생산 - 코오롱 290여 명의 연구진이 우리 민족 내일의 첨단화학산업을 앞서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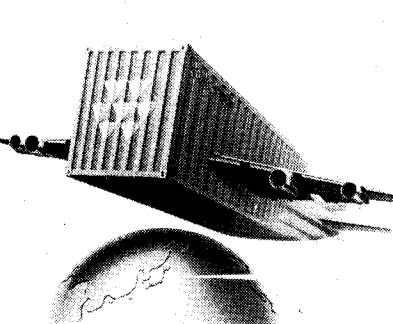


항공전자 신소재부터 산업용 고기능 로봇까지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미래산업의 종아라 불리는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로봇산업 등에서 이미 선두주자로 나선 코오롱 - 각종 공작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수치제어기 CNC, 비록 산업용 로봇, 공작장치의 시스템의 컴퓨터제어장치인 PLC와 레이저 가공기분야 등에서 고부가가치 최첨단 산업에 영감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국민생활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해 민주변명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의 우수성과 코오롱의 신념으로 무역역국 코리아의 기반을 앞서 다져나가는 코오롱

무역에 대해 무관심했던 36년전부터 코오롱의 수출 역군들은 세계 무역시장을 뚫으며 자랑스런 MADE IN KOREA의 신뢰기반을 다져 나가기에 노력했습니다. 열사의 시냇에서 빙하의 알라스카까지 코오롱의 무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이 달려있는 지구촌의 이 치열한 무역 전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오롱은 다음 세기의 다국적 복합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토목, 항만, 플랜트 및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미래도시 건설의 신공법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이제 건설분야는 컴퓨터로 인공물은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내의 대규모 공사에서 까다로운 해외공사까지 언제나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기술적 명성을 쌓아온 건설의 역군 코오롱 - 세계 최첨단 ILM 공법 해상교량(평안남도), 지하 인공수 저장(부산시하천), 세계의 전문기술에 의해 21세기 건축기술의 총아로 불리우는 서울올림픽 수영경기장 등 그 광범시공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코오롱은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도시의 소망들이 구체화하여 건설한국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코오롱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일 또한 코오롱의 꿈입니다. 첨단기술과 생명을 연결하는 통신산업분야, 신용사회를 만들어가는 신용카드사업분야,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스포츠사업분야 등 오늘날 물론 다음 세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코오롱의 서비스산업의 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준비이며 위대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